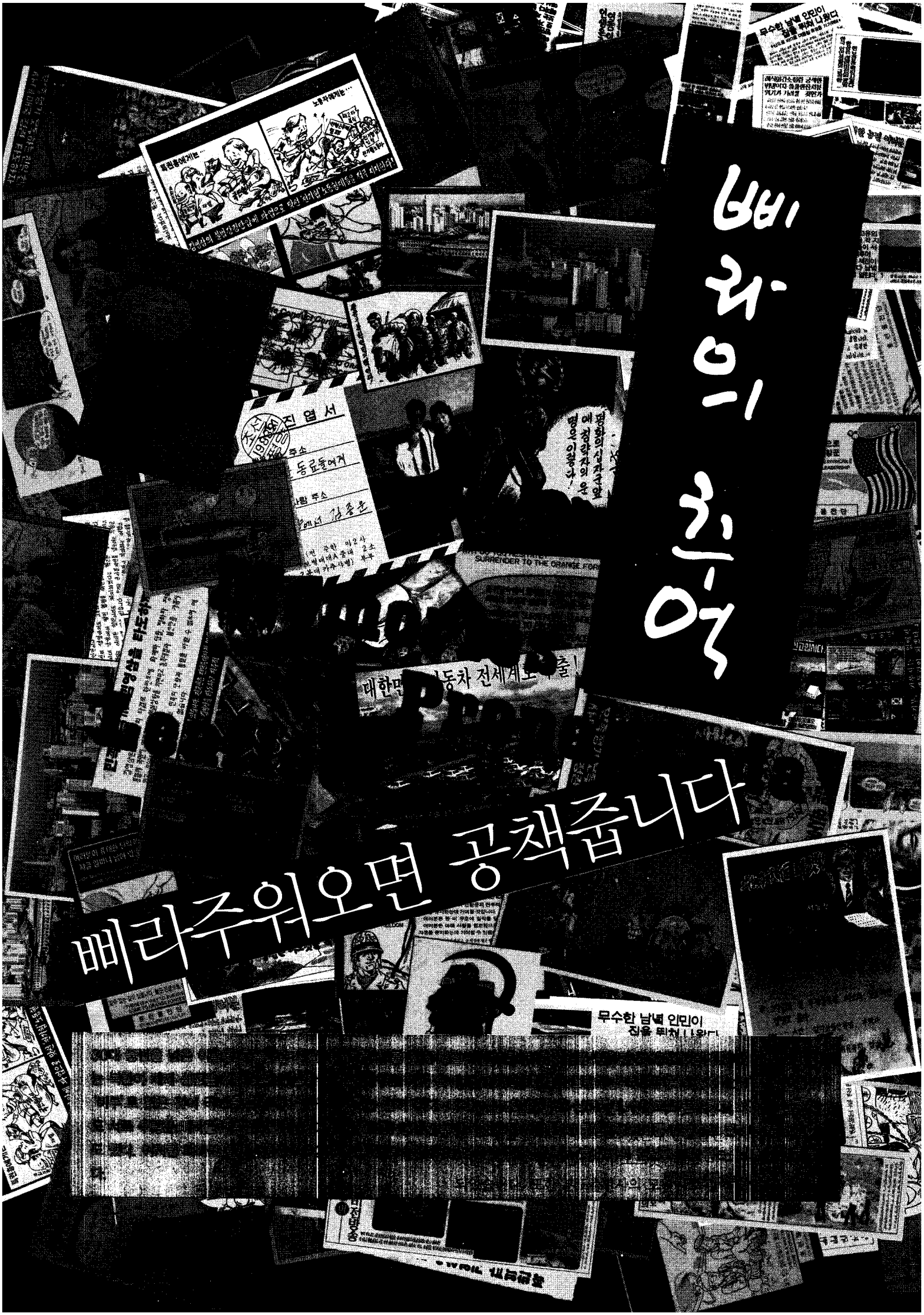

베라의 초역
베라주워오면 공책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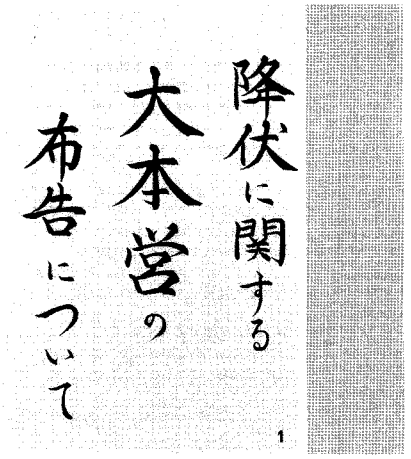
전쟁의 부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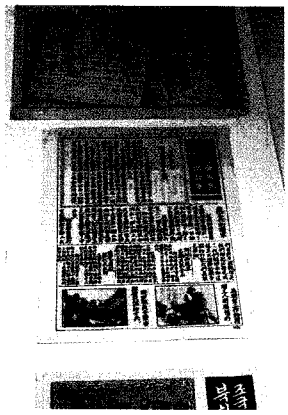
삐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20, 30년대 일본군의 승리를 위해 조선인이 애국하는 모습을 선전한 전단이다. 친일단체 '상애회(相愛會)' 회원들이 일본군 군복을 바느질하는 사진 옆에 '총후를 지키자! 부르짖는 반도의 열성'이라고 적혀 있다. 총후는 후방 지역을 뜻한다. 일본군이 만주 일대 중국의 항일무장단체나 태평양전쟁이 치열했던 뉴기니 섬과 필리핀의 연합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삐라도 있다.

6 · 25전쟁에서는 심리전과 선전전의 비중이 커지면서 삐라가 엄청나게 뿌려졌다. 당시 삐라는 대부분 상대편의 귀순이나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북한이 뿌린 'US Airman writes to his buddies' 란 삐라는 미군 포로가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연합군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군이 뿌린 삐라 중에는 '활짝 웃고 있는 북한 포로들의 사진'을 담은 것도 있으며,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한국 사람의 쌀을 빼앗아 인도인을 먹여 살린다는 심리전을 펼친 것도 있다. 이런 삐라들은 'safe conduct pass' '안전보장증명서'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이 삐라를 지니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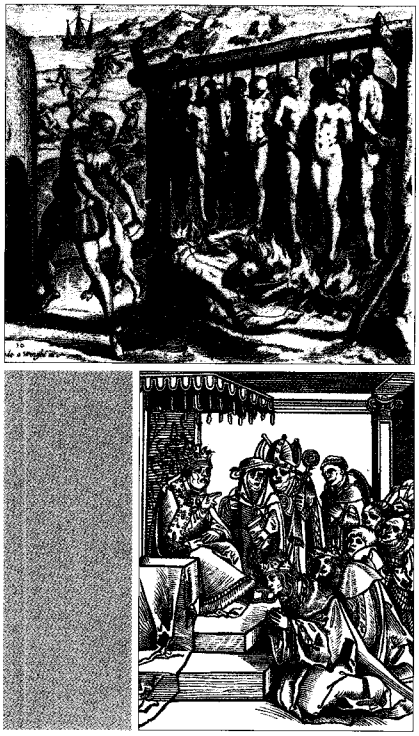
전쟁 이후에도 수많은 삐라가 뿌려졌다. 1970, 80년대 초 북한은 삐라를 통해 1974년 건립된 인민문화궁전과 평양 등을 선전했다. 이후 북한 삐라의 내용은 남한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으로 바뀌었다. "총 칼부림과 사람 잡이밖에 못 배운…" 등 입에 담지 못할 인격 모독이 많았다. 북한의 주체사상 학습 조직이 한국군 내에 결성됐다는 등 거짓 이념 공세도 이 시기 삐라의 특징.

한국이 북한에 뿌린 삐라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홍보하는 게 대부분이다. 1980년대에는 현대식 주택, 깨끗이 정돈된 거리 사진을 담거나 '여름이 오면 인생은 즐거워라'라는 제목으로 백사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남녘 인민들'을 보여주는 삐라가 많았다. 1990년대 초에는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 등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1 일본군 항복 삐라(일본어사진)
2,3 한국군과 유엔군이 뿌린 삐라
4 국군 및 유엔군이 사용한 전단
5 한국군이 뿌린 전단
6 중공군과 유엔군이 사용한 전단



서양의 삐라
위. 네덜란드 독립운동 당시 에프파냐인에 대한 네덜란드인의 적개심을 적개심을 고취시키려고 제작된 삐라
아래. 교황의 행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 행동과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 제작된 삐라

서양의 삐라

서양에서 최초의 인쇄술은 요한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 1400~1468) 에 의해 1430년대에 발명되었는데 유럽인들은 이 신기술을 이용해 14세기까지만 해도 성 한 채 값과 맞먹었던 성경책을 인쇄하고, 종교교리서를 출판하는 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은 소설책이나, 당시 유행하던 체스게임의 기술 등을 소개하는 오락서적, 그리고 축성술과 무기의 구조 등을 설명한 기술서적 등을 출판했다.

당시에 등장한 신풍경으로는 '삐라'가 있다. 반란을 주장하는 세력이나 무언가 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리를 끌어 모으기 위해 무언가 명분을 제기하기 마련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세력들은 벽보를 써서 붙이거나 공개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현 지배층의 무능력함이나 탐욕을 고발했는데, 삐라는 기존의 선전물에 비해 더욱 더 공격적이면서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삐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 교황의 발에 입 맞추는 군주들의 모습이 나란히 그려져 있는데, 그림 위에는 각각 'CHRISTVS(그리스도)'와 'ANTICRISTVS(그리스도의 반대자)' 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이 삐라는 당시 대부분 글을 알지 못했던 독일농민들을 위해 뿌려진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이 삐라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의 행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 행동과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덜란드 독립운동 당시에도 삐라가 뿌려졌는데, 이 삐라에서는 닥치는 대로 신교도들을 교수형시키고 있는 에스파냐 군정의 모습을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해 에스파냐인에 대한 네덜란드인의 적개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비난하고자 하는 쪽의 일을 과장해서 묘사하고 선전하는 기법은 오래전부터 삐라에서 쓰인 방법이다.

삐라의 진화

삐라는 최초의 근대적인 인쇄물로써 대량으로 제작되어 또 익명의 인물이 대량으로 뿌렸기 때문에 보통 성당의 높은 종탑이나 아파트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살포되었다고 한다. 삐라를 제작한 이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한 원판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인쇄기를 이용해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비밀성도 보장되었다. 무엇보다도 삐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과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폭넓은 층에게 자신들의 명분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삐라의 진정한 위력이라 할 수 있겠다. 중장년층 세대들의 어린 시절만 해도 야산에서 북한 삐라를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공책이나 연필 따위를 받곤 했는데 이 또한 삐라의 잠정적인 위력을 깨달은 위정자들의 현명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삐라는 6 · 25전쟁 당시 인민군은 물론이고 중공군, 국군, 유엔군 모두 뿌렸는데, 이 삐라에는 '쓸모없는 싸움이니 그만 두자', '집이 그립지 않은가?', '이 삐라를 갖고 항복하면 생계를 보장해주겠다.'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허기에 굶주린 병사들이 싸움을 그만두거나 군내에서 폭동을 일으키게끔 유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늘날 삐라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과 '대중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 스팸메일(E-mail spam)로 진화되어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다. 스팸메일을 전쟁의 명분을 넘어서서 새로운 상품의 홍보나 금융대출, 비아그라 같은 성인용품의 홍보, 혹은 매매춘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광고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무제한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 · 윤리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삐라의 본래 속성으로 볼 때 이러한 스팸메일은 과거 삐라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인쇄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반공교육을 위한지침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때려잡자 공산당'과 '의심나면 신고하자' 이 두 문장은 반공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장들이라 선생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에게 말하곤 했었다. 그래서 간첩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지침서도 있었다.

- 유행에 맞지 않은 어색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
- 어색한 서울 말씨를 쓰는 사람.
- 선글라스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다니는 사람
- 밤마다 북한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듣는 사람
-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
- 새벽에 이슬 맞으며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 사진을 찍을 때 건물 특히 관청 및 정부 주요 건물을 찍는 사람.
- 담뱃값이나 버스 요금 등 일상 요금을 잘 모르는 사람.

배트남전에 뿌려졌던 삐라

삐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대한민국에 대한 소개 내용으로 남한의 국민소득, 대학진학률, 세계 경제력, 여행완전자유화, 도로포장률, 농업, 세계대통령과 같은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등의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을 방문한 소련, 중국 동포들에게 가만히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닌 거짓된 사회라며 북한 경제는 제주도의 경제력도 안 되는 수준이고, 인민과 함께 죽을 드신다는 장군님은 그걸 먹고는 배가 나오고 군턱이 생길 수 없다고 했다. 항일조작의 최고절정은 구호나무이고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등의 항일경력이 조작되었다고 했다.

또한, 중국 등의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한 이유, 6 · 25전쟁의 발생원인과 과정과 탱크, 해군함대, 미사일, 전투기 등의 남북군사력 차이를 비교했다. 이와 함께 극동방송, VOA, RFA, 자유북한방송 등을 청취할 수 있는 주파수와 함께 탈북 했을 때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단체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자료제공_ 용산전쟁기념관,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